

현 불 뉴스

한가죽봉사단 모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기획실장 현중) 한가죽자원봉사단이 발족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봉사자를 모집한다. 복지재단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오는 14일 탑골공원에서 점심공양은 물론 무료진료, 이·미용봉사, 침상봉사 등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한 노인공양행사를 마련한다.

광주사암연 강연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영조)는 지난 2일 광주시민회관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불교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영조님의 인사말과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의 격려사 송인현(관음사 신협) 이법호(형림사 신협) 이사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광주=주영직 지사장)

불교산악회 결성될듯

신행과 취미를 조화시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 불교산악회가 모여 전국 규모의 불교산악회를 결성한다. 부산불교산악회, 금강애아리산악회, 성남불교산악회, 대구불교산악회 등은 지난달 25일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대한불교산악회를 창립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불자당선자 축하법회

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오는 13일 롯데호텔에서 15대국회 불자당선자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자민련불자회(회장 김용태)도 11일 서울 송파동 통도사 호국포교원에서 자민련 소속 불자당선자 축하법회를 봉행한다.

학승 25명에 장학금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회를 열고 해외 유학생 15명과 국내 장학금 10명 등 총 25명의 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이날 승가대학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칭)종립 삼학원을 설치키로 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대구 수성수련관 개관

(사)마하아나 불교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관장 초우스님) 개관법회가 지난달 28일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여의도 '불교문화대전' 열린다

불교TV 23일~6월1일 종단·유물관등 개설... 미술·영상·공연등 다채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불교문화대전'이 오는 23일부터 매일 아침을 밝히는 여의도와 함께 10일간에 걸쳐 여의도 대광장에서 펼쳐진다. 또한 상설 사찰음식관과 21세기 정보통신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가전 제품도 전시된다.

또 각 분야의 개인초대전 형식이 될 현대미술관을 비롯 다양한 불교용품과 세계각국의 불교관련 자료가 모여질 공예품관 및 세계 불교상품관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와 불교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불교TV(사장 태웅) 주관으로 치러지는 이 행사는 불교문화제 전시를 비롯 예불의식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이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게 될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전시장을 마련했다. 먼저 종단관에서는 조계종을 비롯 태고종 진각종 등 8개의 대표적인 불교종단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 자료 전시 홍보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유물관에서는 불교미술 각 분야를 시대별로 정리해 변천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게 했고, 한국불교를 대표할 큰 스님들의

영정 및 유품도 전시된다. 또 각 분야의 개인초대전 형식이 될 현대미술관을 비롯 다양한 불교용품과 세계각국의 불교관련 자료가 모여질 공예품관 및 세계 불교상품관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들도 마련돼 있다. 민속놀이 마당, 영상제, 남사당패 공연, 불교전통화합놀이 요일별로 펼쳐지며 29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불교법회와 육법공양도 시연한다. 또한 상설 사찰음식관과 21세기 정보통신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가전 제품도 전시된다.

또한 25일 저녁에는 박봉훈 교수가 이끄는 국악관현악단이 이번 행사의 테마 공연인 '1천6백년의 승결'을 비롯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마당, 부모는중송 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보건복지부 올 국회 상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들도 마련돼 있다. 민속놀이 마당, 영상제, 남사당패 공연, 불교전통화합놀이 요일별로 펼쳐지며 29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불교법회와 육법공양도 시연한다. 또한 상설 사찰음식관과 21세기 정보통신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가전 제품도 전시된다.

또한 25일 저녁에는 박봉훈 교수가 이끄는 국악관현악단이 이번 행사의 테마 공연인 '1천6백년의 승결'을 비롯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마당, 부모는중송 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보건복지부 올 국회 상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들도 마련돼 있다. 민속놀이 마당, 영상제, 남사당패 공연, 불교전통화합놀이 요일별로 펼쳐지며 29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불교법회와 육법공양도 시연한다. 또한 상설 사찰음식관과 21세기 정보통신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가전 제품도 전시된다.

또한 25일 저녁에는 박봉훈 교수가 이끄는 국악관현악단이 이번 행사의 테마 공연인 '1천6백년의 승결'을 비롯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마당, 부모는중송 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보건복지부 올 국회 상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대행님 법회와 불교음악회가 지난달 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광주불심 한마음 되었다"

대행님법회 현장서 2천3백만원 모금

광주 불자들은 지난달 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소년소녀 가장돕기 대행님 법회'와 불교음악회'에서 2천3백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날 대행님법은 법어를 통해 "우주와 자기가 하나되는 도리를 믿고 생활속에서 마음을 닦을 것"을 당부했다. 2천여

명이 참가한 대행님법회 현장서 2천3백만원 모금.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진해 청룡사서 목사가 휘발

대웅전 문부수고 범당난입 불상·탱화 훼손

경남 진해시 자은동 소재 청룡사(주지 경상) 법당내에 있던 불상과 탱화 등이 한 목사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 불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청룡사 주지 경상스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2시경 청룡사 인근 2km 정도 떨어진 대현애수교 장로회 소속 면류관교회 배성호목사(43세)가 청룡사 대웅전 문부수고 범당난입 불상과 탱화 등을 훼손한 목사에 대해 진해경찰서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해마다 이교도들의 훼손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목사가 법당의 불상을 부수고 탱화를 찢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으로 집힌 목사는 경찰서에서 단순 정신병자로 처리, 석방됐다.

이 시기 수생 생명나눔실천회에 각막기증

"육신을 사회광명에 바칩니다" 경상대 의대 해부실에 시신회향도

4월22일 새벽, 경남 진주 경상대 의대. 결핵을 앓고 있던 이기수씨(67)가 한달여 사경을 헤매던 끝에 숨을 거뒀다. 이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정혜스님(성안원 원장)과 신도들의 독경이 끝나자 "살아생전 발도둑처럼 살아온 육신을 새생명 광명을 밝히는데 써 죽어서나마 참함을 살고 싶다"던 이씨의 뜻대로 시신은 경상대 의대 해부학실로 인계됐다. 이씨는 이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에 시신, 각막기증신청을 해 놓고 있었다.

Advertisement for 'Sachimsik' (sachimsik) featuring a list of product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national specialty food store.

Advertisement for '제1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19th Buddhist Ceremony (Sungmyeong, Beompa) Student Recruitment) at Hae Dong Buddhist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이자임 결혼연구원' (Lee Ja-im Marriage Research Institute)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woman and details about their marriage counseling services.